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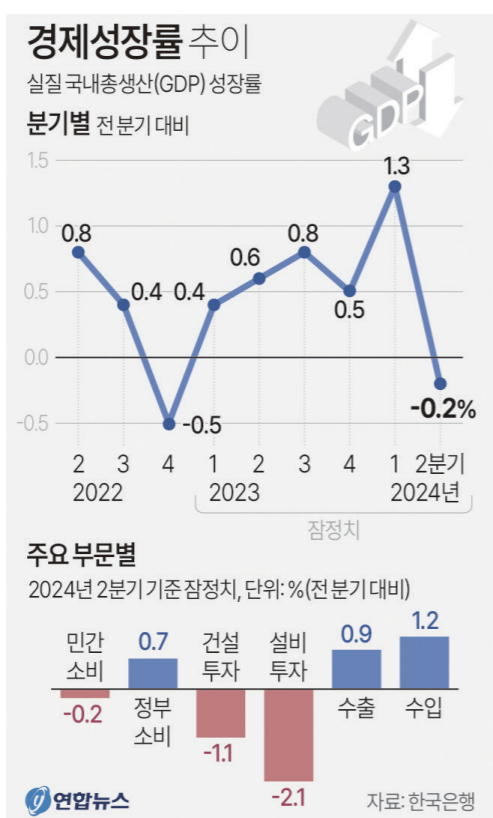
내수·수출 부진에 발목 잡혔다... 2분기 GDP -0.2% '역성장'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규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강창구 국민소득총괄팀장, 하남영 국민소득총괄팀 과장. 한국은행 제공

한은, 2024년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경제성장률 1년 6개월 만에 뒷걸음 민간소비, 건설·설비투자 부진 영향 1분기 GDP 대폭성장 따른 기저효과 국내총소득도 1.3%↓... GDP의 6배 한은 "연간 성장률 2.5% 부합할 것"



을 중심으로 0.9%, 수입은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축산업과 어업이 늘면서 5.4% 증가했고, 제조업은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전기 가스수도사업은 수도와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등이 줄면서 0.8% 감소했다. 건설업 역시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면서 5.4%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2분기 실질 GDP는 직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0.5%) 이후 처음이다. 분기별 GDP 성장률은 작년 1분기(0.4%)부터 2분기(0.6%), 3분기(0.8%), 4분기(0.5%), 올해 1분기(1.3%)까지 계속 확대되다가 감소 전환했다.

2분기 실질 GDP가 역성장한 이유에 대해 한은은 지난 1분기의 실질 GDP가 대폭 성장하면서 기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출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교육 등 서비스 소비가 소폭 증가했지만, 승용차나 의료

등 재화 소비가 줄면서 0.2% 감소했다. 건설 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1.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는 늘었지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가 감소해 2.1% 줄어들었다. 반면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 증가 등으로 0.7% 늘었다.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2분기에 1.3% 감소하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2.3%로 플러스를 유지했다.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하며 2022년 상반기(3.2%) 이후 가장 높았다. 전기비 성장률은 감소했지만 전년동기비 성장률이 확대되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 달성 여부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전년 동기 대비 GDI 성장률은 4.4%로, 이 또한 전기비 보다 높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안정되면서 내수도 완만히 회복되고 연간으로는 5월 전망(2.5%)에 대체로 부합하는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호정 기자

KB국민은행, 다주택자 추가 주담대 '금지'

29일부터 규제 강화, 금리도 0.2%p ↑ 갈아타는 대환 대출도 신규 신청 제한 "은행권 전반 대출 제한 확대 가능성"



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급증에 따라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은행의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도 영업점에서의 신규 신청을 제한하고,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신청만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취급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우선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주담대 증가액은 22조 2604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4.2% 증가했으며, 특히 2분기에만 15조

5057억 원이 늘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자, 은행들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오는 29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p 인상할 계획이며, NH농협은행도 이미 금리를 인상했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은 금리 인상만으로는 대출 증가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의 이러한 조치는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은행권 전반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현승 기자

태영건설, 광명 자원회수시설 실시설계 맡는다

위크아웃 속에서도 수주 달성 '쾌거' 약 1464억 원 규모... 내년 5월 착공



태영건설 제공

태영건설이 위크아웃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24일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증설공사 설계심 의에서 경쟁사 GS건설 컨소시엄을 제치고 실시설계역자로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태영건설(45%)은 금호건설(15%), 도원이앤씨(15%), 테크로스위터엔에너지(10%), 이에스아이(5%), 환경에너지출루션(5%), 동부엔텍(5%)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일대 1만 7320㎡ 부지에 하루 19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기를 증설하는 프로젝트다. 굴포전망대를 비롯해 질라인과 환경체험관, 암벽 등반장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도 예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입찰공고 이후 올해 6월 입찰을 거쳐 24일, 설계심의를 진행했다. 공사비는 약 1464억 원(부가세포함)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다. 내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

하고 2025년 5월 착공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이번 실시설계역자 선정으로 다시 한 번 환경 분야에서의 수주 경쟁력을 인정받게 됐으며 경영정상화에도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환경 분야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원회수시설사업의 성공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자원회수시설로 주민 친화공간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다경 기자

농촌 파괴하며 ESG?... SK에코플랜트의 딜레마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사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 계획 담고 있어 주민 반발 갈등 확산... 5년째 표류 전문가 "보존vs개발 균형점 찾아야"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전경. 괴산군 제공

SK에코플랜트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2021년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났다고 선언하고, 테스 인수를 통해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지만, 정작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환경 파괴와 주민 갈등을 야기하며 친환경 기업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가 추진한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사업이 5년째 표류하고 있다. 2019년 시작된 이 사업은 2022년 송인군 괴산군수 당선 당시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다.

사리면 사담·중흥리 일원 약 49만 평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이 산업단지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환경 파괴, 농업 피해,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지구환경 사업'을 내세우는 SK에코플랜트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이윤을 추구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산업단지 내에 들어서는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우려도 크게 제기했다. 대규모 개발로 인한 대기 오염 가능성 역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약 1년간 지속된 주민들의 시위에 괴산군은 결국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을 밟으며 사실상 재검토 단계에 들어섰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괴산군은 "올해 초에 메가폴리스가 들어서는 지역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서 해제 됐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SK에코플랜트가 추진하는 다른 산업단지 사업에서도 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곡, 선장, 대전, 용인 등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환경 파괴 논란을 일으키며 기업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조성은 불가피하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단지에는 폐기물 처리장이 필수적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라는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다경 기자

건보공, 복지사각지대 해결사 2명 도지사 표창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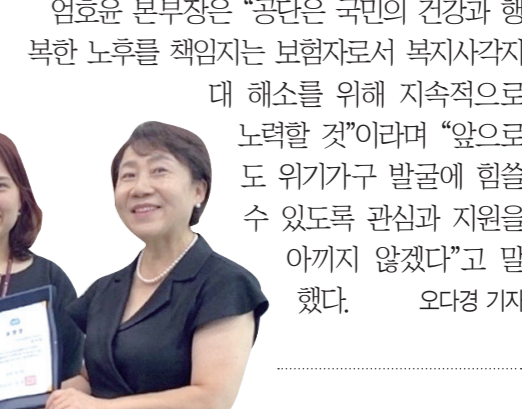
수원 원지영 과장, 안성 홍아림 대리 긴급 복지 위기상담 '활성화' 공로

원지영 과장은 "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굴에 힘쓸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다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직원 2명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원지영 수원동부지사 과장과 홍아림 안성지사 대리는 지난해 3월 경기도와 맺은 '위기가구 발굴 협력'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두 직원은 업무 수행 중 자녀의 소득인정액 초과로 생계비 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